

## 라오스에서 한류는 ‘온-에어(On-Air)’

라오스 젊은층, 최신 한국드라마 실시간 시청...중소기업 진출 호기

인도차이나 반도의 오지 라오스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직 대형 스타의 콘서트나 이벤트 방문은 없지만 친선공연 등에 좀 더 다양한 스타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라오스 내 한류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게 확실하다. 코트라는 따라서 라오스가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초기 시장임을 감안하면 한류 열풍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고가 이미지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라오스에도 ‘천송이, 도민준’ 열풍

라오스어와 태국어는 70~80%가 유사하며 통상 라오스에서는 태국 케이블방송을 통해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문화가 간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태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과 불법 다운로드로 콘텐츠를 접하며 현지 매장에서는 장당 5000킵(약 0.65달러)만 주면 손쉽게 DVD를 살 수 있다. 비엔티안에 거주하는 10대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있으며 현재 방영 중인 ‘별에서 온 그대’, 최근 종영된 ‘상속자들’, ‘신사의 품격’, ‘추적자’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라오스인들은 한국 배우들의 매력적인 외모와 패션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 드라마 주인공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인 ‘라인’이 현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도 이 때문이다.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과거 한국을 방문한 라오스인 대부분이 공무원과 국가 장학생이었지만 지난해 라오스인에게 발급한 한국 여행비자는 1789건으로 2008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한류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한국 관광이 크게 증가했다.

□ 라오스에도 K-POP 스타가 있다?

K-POP 역시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태국을 통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튜브나 태국 케이블 채널인 ‘트루 뮤직’, 우리나라 KBS월드의 ‘뮤직뱅크’를 통해 K-POP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2ne1’ 등이 이미 한류 열풍을 재현했고 2012년 세계적으로 K-POP을 각인시킨 ‘싸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EXO’, ‘비스트’, ‘CNBLUE’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문화공연단이 2006년부터 2011년간 6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비엔티안 등지에서 공연했는데 열악한 문화 인프라와 특별한 행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친선 문화공연은 라오스 내 한류 확산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작년 말 라오스의 상징인 탕루앙 사원광장에서 한국-라오스 문화교류의 밤 행사 중 ‘K-POP 콘테스트’가 펼쳐졌는데 많은 라오스 젊은이가 참가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호응했고 상위권 팀들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평가다.

□ 고급 음식으로 인식되는 한식

한국 드라마와 K-POP의 확산은 외식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 ‘대장금’은 태국을 비롯한 라오스의 외식문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한 한국 음식점 주인에 따르면 음식점 고객의 60% 이상이 현지인이며 회사원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있다. 한번 방문한 손님이 다른 손님을 데려오면서 재방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 근처의 한 한국식당이 현지 방송국인 ‘라오스타 TV’에 촬영된 것도 현지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다. 비엔티안 곳곳에서 한국 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고 라오스인에게 한국 음식은 현지 음식보다 다소 비싸지만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하고 새로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젊은층에 인기가 있다. 라오스인이 한국 음식을 먹는 게 1980년대 한국인이 피자, 햄버거 같은 서양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